

시·도 의원도 정치 후원금 허용되나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선관위, 후원회 도입 수용 밝혀”

기부·모금 한도액 해당 선거구 비용 제한액 50%로

인허가 대가성·이권 개입소지 차단 대책 마련 시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광역의원 후원회 도입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지방의회 정치자금 양성을 위한 광역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후원회 도입이 현실화할 경우 해당 선거 때마다 후원회가 난립하고 각종 인·허가권을 둘러싼 대가성 후원금과 이권개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현행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된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해

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의정활동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데도, 지방의원만 후원회를 불허하는 것은 결국 불법적 정치자금 수수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연간 기부·모금 한도액은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의 50%로 하고, 후원회는 선거일 후 환할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내용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후원회 도입의 최종 결정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윤석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회장은 “정치자금 양성화와 정치참여 확대 등 선진적인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이 시급하다”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정 사용 방식을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민 공감대 확보와 국회 설득을 통해 개정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원 후원회를 불허하는 것은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중앙선관위에 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 구성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의원인과 이권개입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이에 대해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은 “예전부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논의해왔던 문제인데, 진즉 도입이 됐어야 했다”면서 “선거 출마자들이 합법적으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후원회 도입이라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원인과 이권개입 등 각종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후원회와 관련, 큰 문제를 야기한 적이 있느냐”라면서 “도의원들이 민원인들과 만날 일이 거의 없고 후원회를 도입한다고 해도 비용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참조기 종자 55만마리 양식어가 분양

어획량 5년간 49% 급감

영광 굴비도 27%나 줄어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하 수산과학원)이 연말까지 참조기 종자 양식기간을 단축해 양식어가에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참조기 어획량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영광 굴비산업이 치명타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3월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참조기는 최근 5년간 어획량이 49% 급감했으며, 영광 굴비 생산도 27% 줄었다. 참조기 어획량은 지난 2011년 5만9226t에서 2016년 1만9276t으로, 무려 4만t 이상이, 영광굴비 역시 2011년 535만1381kg에서 2016년 440만9000kg로 134만kg 이상 줄었다. 굴비 원료인 참조기 품귀 현상으로 전남의 대표 특산물인 영광 굴비 생산도 난감하다. 수산과학원은 이에 따라 참조기 종자 생산과 양식 산업화로 굴비원료 어획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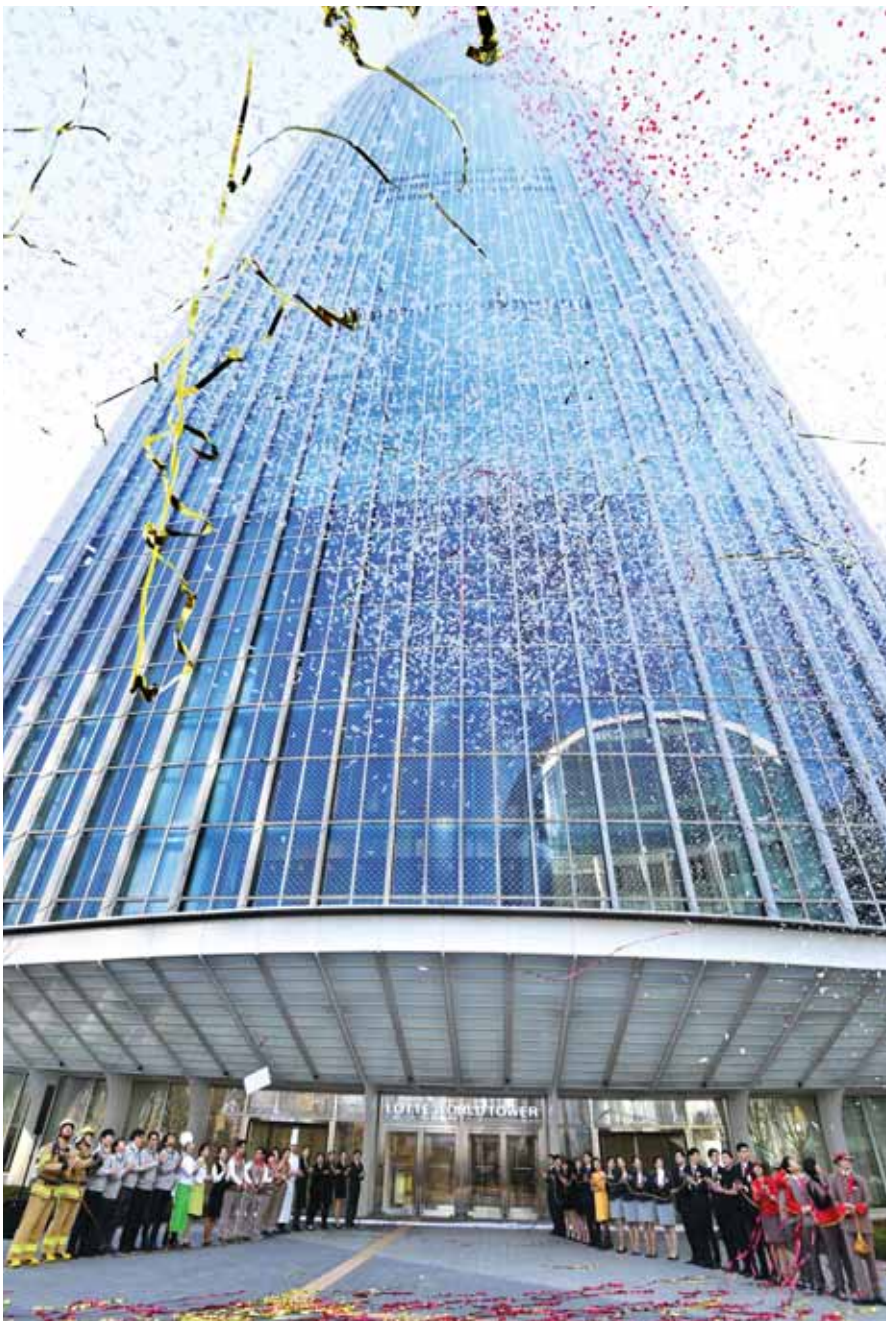
원 부족량을 대체하기로 했다. 경제성 있는 참조기의 양식기간을 단축시켜 올해만 55만 마리의 종자를 생산해 양식어가에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월 9일 가공업체, 양식어가 및 영광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식 활성화 방안을 협의한데 이어 2월 24일 미래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수산과학원은 이미 참조기 수정란 4800cc를 확보해 영광군 양식어가 2곳에 2100cc의 수정란을 분양하기도 했다. 앞으로 영광 4곳, 완도 5곳 등 양식어가 9곳에 종자를 분양하는 것은 물론 양식 기술을 이전하고 자원 증대를 위해 어린 참조기 46만 마리를 방류할 방침이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여느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등으로 참조기 역시 어획량이 줄고 어획장소가 변경되는 등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라며 “결국 참조기 양식 활성화와 치어 방류 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농가인구 25년만에 70% 감소

호남통계청, 2015년 35만명

광주·전남지역 농가인구가 25년만에 7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광주·전남지역 농가인구는 35만명으로 25년 전인 1990년보다 69.4%(79만2000명)가 줄어들었다. 2015년 기준 농가 수는 16만2000가구로 1990년에 비해 절반에 가까운 48.3%(15만1000가구)가 감소했다. 2015년 광주·전남지역 평균 가구원 수는 2.2명으로 주된 농가 유형은 2인 가구로 조사됐다. 1990년 3.6명에서 1.4명이나 대폭 감소했다. 농가 경영주는 10명 중 4명 가량이 70세 이상으로 1990년에 비해 70세 이상 고령층이 176.5%가 증가했다. 반면 60대 이하 농가 경영주는 감소 추세로, 40세 미만 감소율이 94.5%로 높게 나타났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농가 경지규모는 42.5%가 0.5ha(5000㎡) 미만의 소규모 농가이며, 주된 영농형태는 논벼로 조사됐다. 소득이 낮은 논벼는 23만7093가구에서 7만7787가구로 1990년 23만7000명에서 67.2%가 감소했다. 축산도 1990년 7900여명에서 2015년 6900여명으로 소폭 줄었다. 반면 소득이 높은 과수 작물은 1990년 4만4000여명에서 2015년 18만7000여명으로 4배가량 늘었다. 채소도 1990년 2만7000여명에서 2015년 3만4000여명으로 증가했다. 2015년 전체 농가의 58.5%는 전업농가였고 나머지는 겸업농가로 파악됐다. 1종 겸업농가 비중은 1990년 23.5%에서 18.4%로 낮아졌으며, 농공단지 등의 증가로 2종 겸업농가는 18.9%에서 23.1%로 높아졌다. /연합뉴스



롯데월드타워 개장식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개장식(그랜드오프닝)에서 직원들이 개장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국내 최고층 건물인 롯데월드타워는 123층 555m이다. /연합뉴스

“화해·상생으로 국민화합을” ... 제주 4·3희생자 추념식

황교안 대행·대선주자 참석

제69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엄숙히 봉행됐다. ‘4·3의 평화훈풍! 한반도로 세계로’란 슬로건을 내건 이번 추념식에는 맑은 날씨 속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 정부 인사와 유족, 도민, 각계 인사 등 1만여명이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했다. 오전 10시 시작된 본행사는 국민의례와 묵념, 헌화·분향, 4·3희생자유족회장과 제주도지사 인사발, 경과보고, 대통령 권한대행 추념사 등 순서로 진행됐다. 황 권한대행은 추념사에서 화해와 상생의 4·3 정신을 강조하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국민적 화

합과 통합으로 우리의 국가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배·보상 문제와 희생자·유족 심의·결정 상설화, 수형인 명예회복, 행방불명인 유해 발굴 등 남은 과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 확산,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4·3 70주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대선을 한달여 앞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대선 주자들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병국 바른정당 전 대표 등 각 정당 지도부도 참석해 헌화·분향하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과 도민을 위로했다. /연합뉴스

전남도립대 총장 김대중 교수 내정

전남도립대 신임 총장으로 내부 출신인 김대중(53·사진) 토목환경과 교수가 내정됐다. 전남도립대는 지난 2004년 담양캠퍼스와 장흥캠퍼스가 통합된 뒤 모두 외부인이 총장에 선임된 바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도립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임용후보자 김대중 현 교수, 김영선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 2명을 선정해 전남도에 추천했다. 전남도는 김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최종 결정했다. 신임 김대중 총장은 18여년 동안 도립대에서 도서관장, 학사지원실장, 총장 직무대행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영광 출신으로 광주 서석고, 전남대 토목공학과 석·박사과정을 마치고 지난 2001년 임용됐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공무원 ‘한달에 한번 오후 4시 퇴근’ 유연근무제 시행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오후 4시에 조기퇴근하는 ‘유연근무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인사혁신처는 3월 정부 일부 부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근무혁신 방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현재까지 7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근무혁신 방안을 제출받았으며, 이달 초순 안에는 나머지 부처로부터 근무혁신 방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부처별 현황을 보면 기획재정부·기상청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인사혁신처는 전 부서 직원을 3~4개 그룹으로 나눈 뒤 그룹별로 번갈아가며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원 최희석 · 정행진 · 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